

[전라도]



(42) 이영일 前 국회의원 <상>

■ 전라도 역사 이야기

- 함평 손불

“80년 신군부 권정달씨가 민정당 입당 강요”

“통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1980년 10월 신군부의 실세 권정달씨가 찾아와 직장 그만 두고 집으로 가든지(민정)당으로 가든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당으로 갔어요. 그런데 또 광주로 출마하라더군요. 하지만 그것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전국구 의원 자리를 준 것예요.”

이영일(68) 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로 11대 국회에 진출 하던 1981년 이야기다. 3선 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1939년 함평군 합평읍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다. 그러나 해보 초등(국민)학교 2학년 때 광주중앙초등학교로 전학 갔다. 해보면장이던 부친이 광주시청으로 근무지를 옮긴 것이다. 그후 광주에서도 이사를 하면서 5~6학년은 서석초등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당시 광주 최고의 명문이던 서중과 일고를 나와 1958년 서울대 정치학과 입학했다.

이 전 의원은 3학년 때인 1960년 4·19 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대학생들이 방관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서울대 문리대 학생 데모를 주동했어요. 당시 같이했던 친구들이 윤식(전 국회의원), 이수정(전 문광부장관, 작고), 박실(전 국회의원), 양성철(전 국회의원) 등이었지요.” 이 전 의원은 4학년 때는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다가 5·16이 일어나면서 투옥됐다.

“5·16 혁명제蹲에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당시 주심판사가 이희창씨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투옥 1년여 만에 형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며 1963년 복학했다.



지난 1997년 치러진 광주 동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영일 전 의원이 지대석 전 의원과 축하의 포옹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이어 차점자로 재선의원이 됐다.

“당시 선거에는 유세전이 재미있었어요. 당시 제가 했던 연설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언론에 대서특필했는데 그 중에 ‘광주시민은 언제까지 해태 타이거스가 이기는 재미로 살 것인가. 이제는 해태가 지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광주시가 돼야 한다.’ 광주에는 낙후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고 한과 응어리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문제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해태 이기는 재미로 사나”

1985년 총선 당시 유세 내용 대히트

이 전 의원은 또 이 12대 총선에서 광주의 직활시 승격을 공약했다. “당시 김동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부추겼어요. 당시 직활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00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당시 광주 인구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선 승격, 후 보완하겠다며 밀어붙였어요. 당시 후 광산구를 광주로 편입시키면서 직활시 승격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의정활동 중에 광주에 대한 돋보이는 애정과 노력을 보였다.

“광주의 일이라면 몸을 돌보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에 당시 양육하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서울에 가서 이영일과 상의해 보라’고 말이 둘 정도였어요. 5·18 해직교수의 복직 문제를 제기, 뒷날 해결의 실마리가 됐고 평동공단 등 산업시설 유치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68년 DJ와 전화통화 이유로 기자 해직

통일원연수원장때 ‘평화통일 대계’ 구상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졸업 후에 취직을 못하고 있었던 그는 1965년 소위 한독당 내란을 모사건으로 두번째 구속됐다.

“당시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고려대에 무장군인이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묘하게도 당시 출발한 군인 중에 전두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원방위군’이라는 학생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직원들을 모두 한독당에 가입했어요. 효율적인 운동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지요. 총선에 공천도 했어요. 김두한씨가 당시 선거에서 이겨 국회에 진출했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모두 체포됐어요. 또 7년 구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부죄로 풀려났지요.”

석방 후 그는 바로 성균관대학교 사학교육연구원에 조교로 취업했다. 거기에서 2년간 사상계에 정지 평론도 썼다. 1968년엔 동양통신 외신부 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전과자는 신원조회에서 걸려 모든 공직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동양통신 사주인 김성곤씨가 도와줘서 간신히 취업했지요. 그런데 외신부에서 일하다 보니 해외 소식을 많이 알게 됐고 당시 김대중 의원이 저에게 그런 해외 상황을 자주 물었어요. 그런 내용이 도청으로 밝혀지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4·19혁명 주동자가 김대중 계보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해서인지 저를 통일원에 취업

약력

- ▲ 1939년 함평군 함평읍 출생
- ▲ 광주서중·일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 11, 12, 15대 국회의원
- ▲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 중앙정치연수원장
- ▲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특보, 대변인
- ▲ 한중문화협회 회장

시켜줬어요.”

그는 통일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시작해 북한정치 연구관, 교육홍보국장, 교육홍보실장을 거쳐 역대 최연소로 차관보급인 통일원 연수원장을 지내는 등 10년간 근무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평화통일 방안인 ‘평화통일 대계’를 만들어 통일원 관에게 보고했으며 남북직접자회담과 남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등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26이 일어났지요.”

신군부의 강권에 못 이겨 국회의원이 된 이 전 의원은 전국구 의원직을 마치면 통일원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권정달씨가 통일원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었지요. 그런데 1985년 12대 총선 때 광주 서구로 출마하라더군요. 현역 의원인 박윤종씨의 나이가 많다고 교체한 것이에요”

그는 종선구구제 하에 치러진 총선에서 김녹영씨(신민당)

1985년 총선 당시 유세 내용 대히트

이 전 의원은 또 이 12대 총선에서 광주의 직활시 승격을 공약했다. “당시 김동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부추겼어요. 당시 직활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00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당시 광주 인구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선 승격, 후 보완하겠다며 밀어붙였어요. 당시 후 광산구를 광주로 편입시키면서 직활시 승격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의정활동 중에 광주에 대한 돋보이는 애정과 노력을 보였다.

“광주의 일이라면 몸을 돌보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에 당시 양육하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서울에 가서 이영일과 상의해 보라’고 말이 둘 정도였어요. 5·18 해직교수의 복직 문제를 제기, 뒷날 해결의 실마리가 됐고 평동공단 등 산업시설 유치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언제까지 해태 이기는 재미로 사나”

1985년 총선 당시 유세 내용 대히트

이 전 의원은 또 이 12대 총선에서 광주의 직활시 승격을 공약했다. “당시 김동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부추겼어요. 당시 직활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00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당시 광주 인구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선 승격, 후 보완하겠다며 밀어붙였어요. 당시 후 광산구를 광주로 편입시키면서 직활시 승격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의정활동 중에 광주에 대한 돋보이는 애정과 노력을 보였다.

“광주의 일이라면 몸을 돌보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에 당시 양육하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서울에 가서 이영일과 상의해 보라’고 말이 둘 정도였어요. 5·18 해직교수의 복직 문제를 제기, 뒷날 해결의 실마리가 됐고 평동공단 등 산업시설 유치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85년 총선 당시 유세 내용 대히트

이 전 의원은 또 이 12대 총선에서 광주의 직활시 승격을 공약했다. “당시 김동환 시장이 적극적으로 부추겼어요. 당시 직활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100만명이 넘어야 하는데 당시 광주 인구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선 승격, 후 보완하겠다며 밀어붙였어요. 당시 후 광산구를 광주로 편입시키면서 직활시 승격을 통과시켰어요.”

그는 의정활동 중에 광주에 대한 돋보이는 애정과 노력을 보였다.

“광주의 일이라면 몸을 돌보지 않고 해결하고자 노력했기에 당시 양육하고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서울에 가서 이영일과 상의해 보라’고 말이 둘 정도였어요. 5·18 해직교수의 복직 문제를 제기, 뒷날 해결의 실마리가 됐고 평동공단 등 산업시설 유치 등 각종 도로 개설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 =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85년 총선 당시 유세 내용 대히트

###